

<추천서>

“사는 대로 생각하기 Vs 생각하는 대로 살기”

저는 학원 일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 하루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. 10여년 넘게 학원 업계에서 일하면서, 웬만한 일은 다 경험했다고 자만하던 그때(2020년)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. 코로나를 겪는 동안 학원과 저 자신을 아날로그로부터 디지털로 진화시키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1년을 보내고 나니, “코로나 종식”이라는 희망찬 소식이 아닌 또 다른 1년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... 그 때 20기인 친한 원장님으로부터 고대 AMP를 추천 받았습니다.

매주 하는 “**하루의 일탈**”은 처음에는 학원장으로서의 나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해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저는 고대 AMP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.



고대 AMP = 인큐베이터!

각자 생각의 seed를 가지고 모인 원장님들은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학원을 개원하고,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, 고등부를 확장하고, 법인으로 전환하고 브랜딩 사업을 시작하고 또는 결혼을 하고 ^^



고대 AMP = 그물 낚시!

핀셋 족집게 과외처럼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커다란 그물을 드리우는 낚시와 같이 폭 넓게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는 인식을 키우게 합니다. 그물을 거둘 때쯤 다양한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있어 인생이라는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줍니다.



고대 AMP = 집단 지성의 놀이터!

고대의 AMP 동기들은 당신의 선택을 응원해주며 때때로 함께 해 줄 것입니다. 사업을 확장할 수도, 새로이 골프를 시작할 수도 있고, 다이어트를 시작할 수도, 또는 그냥 음주가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. 무엇을 하던 집단 지성이 당신을 든든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.

“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.”
- 폴 부르제 (프랑스의 시인, 철학자)

많은 사람들이 보는대로 믿고 믿는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저에게 매주 하던 하루의 일탈은 멈출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멈춰 섰기에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선택하여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“사는 대로 생각하는 나에서” “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힘”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즐겁게 동기들과 어울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.

2021년을 마무리 하며 내가 올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단연코 고대 AMP 과정을 이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22기와 함께하기로 선택하신 원장님들도 1년뒤 저처럼 2022년 내가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고 자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.